

# 한 · 미 · 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전자무역을 위한 제도개선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Export Insurance upon Export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xport Insurance for E-trading Promotion-

이수일(Su-il Lee)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 목 차

- |                                |                            |
|--------------------------------|----------------------------|
| I. 서론                          | V. 전자무역을 위한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 개선 |
| II. 한 · 미 · 일의 수출보험제도 및 활용률 비교 | VI. 결론 및 시사점               |
| III. 선행연구                      | 참고문헌                       |
| IV. 실증분석 및 결과 해석               |                            |

##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special support to Korean export industry during past 40 years. However, due to the agreement on UR and appearance of WTO, the Government can't provide most of the subsidies which were allowed before WTO era. Hence, export insurance system became more useful tool since it's one of the few allowed subsidies under WTO.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impacts of export insurance systems on the export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irstly, this study surveyed the export insurance system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n, using a regression analysis it analysed the effects of export insurance systems upon the export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spectively. The period of data is from 1980 to 1999.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for export insurance showed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f both Korean and Japanese but the United States showed insignificant and positive upon the exports.

Key Words: E-trading, Export Insurance System, Export Demand Function, Export

## I. 서론

WTO 체제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정부지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GATT체제와는 달리 WTO의 규정(regulations)에서는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식은 축소되도록 하였으나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제재는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접지원방식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간접지원방식 중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보조금과 수출보험을 들 수 있는데, 연구개발보조금은 수출성장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수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간접보조금에 해당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연구개발보조금을 통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연구개발보조금을 통해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규모나 비중이 미미한 실정이다.

수출보험은 대외거래에서 통상의 보험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1세기 전에 나타난 이 보험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다른 수출지원 정책과 비교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WTO체제 아래에서는 수출보험과 같은 간접지원을 증대하여야 한다.

수출보험제도가 지닌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이용해서 정책적으로 수출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정책보험으로서 수출보험 제도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수출보험제도는 수출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제거해주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자국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수출보험제도는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출거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거래와 관련된 외환·금융시스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수출금융에 따른 대출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의 수출금융 확대를 유도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WTO협정 이후 정부가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해 주는 수출금융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수단은 금지되어 수출보조금을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수출보험제도는 WTO협정에서도 허용되므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수출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보험은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출보험의 확대는 수출촉진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수출보험제도 및 활용률의 비교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미·일 각국의 수출보험제도와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

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끝으로 전자무역을 위한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미국, 일본의 수출보험제도 및 활용률을 비교분석하고,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다음으로 실증분석의 결과를 비교 및 해석하며, 전자무역을 위한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다.

## II. 한·미·일의 수출보험제도 및 활용률 비교

수출보험제도가 수출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제거해주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미국·일본 각국에서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자국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보험제도는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출거래를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수출거래와 관련된 외환·금융시스템에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수출금융에 따른 대출위험을 제거하기 때문에 민간금융기관의 수출금융 확대를 유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WTO협정에 의하여 수출금융과 같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해주는 직접적인 수출지원 수단은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수출보험제도는 WTO협정에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 모두 유용한 수출지원 수단으로서 수출촉진을 하는데 크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보험제도와 활용률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1. 한·미·일 수출보험제도 비교

<표 1>에서 한·미·일 각국의 수출보험제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수출보험제도에서는 11종의 수출보험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의 수출보험제도에서는 8종의 수출보험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6종의 수출보험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이 3국 중 가장 적은 수출보험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은 수출보험제도를 통한 수출지원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수출보험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수출보험제도는 미국과 일본의 수출보험제도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해외투자보험, 시장개척보험, 환 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11종의 수출보험제도가 운영된다. 일본의 경우도 단기종합보험, 기술제공보험, 수출어음보험, 해외투자보험, 환율변동보험과, 수출보증보험, 선불수입보험, 해외사업자금대부보험 등 8종의 수출보험

제도가 운영된다.

이와 같이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보험제도를 통한 수출지원형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목도 있으나 수출보험제도 운영 면에서 3국이 서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신용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사업자금대부보험과 유사한 수출보험 종목을 미국에서는 수출보험제도가 아닌 별도의 보증제도와 대출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수출지원형태는 한국과 일본의 수출보험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증보험 종목과 수출신용보험 종목 및 해외사업자금대부 종목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별도로 보증제도(guarantee)<sup>1)</sup>와 대출제도(loan)<sup>2)</sup>를 통해 금융기관이 수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직접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수출지원 형태에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특성에서 기인한다. 즉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공산품 수출국이 아니고 항공기와 같은 첨단제품이고 대형프로젝트와 같은 서비스 수출이 대부분이므로 미국의 수출상대국에 대한 수출위험이 적다. 따라서 미국은 수출보험제도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보증제도(Guarantee)와 대출제도(loan)를 통한 직접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미국의 보증제도는 수출상품의 제조와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Working capital)의 공급을 촉진하여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수출전 지원제도로, 운전자본보증제도와 구매자신용보증의 두 종목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출제도는 미국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외국의 수입자에게 직접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수출지원수단이다.

이처럼 미국은 단기<sup>3)</sup>·중기 수출보험제도와 보증제도 및 대출제도를 통해 미국의 수출추진을 도모하고,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으로부터 미국의 수출자를 보호한다고 하겠다. 또한 민간분야에서 제공할 수 없는 수출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외국정부의 수출신용 보조금 지급에 대응하여 자국 수출자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보증제도 및 대출제도와 같은 금융신용기능을 수출보험제도 안에 종목으로 두어 자국의 해외시장 확대와 수출지원을 하고 있다.

- 1) 미국의 보증제도는 운전자본보증과 구매자신용보증 2종목으로 분류된다. 운전자본보증(Working capital guarantee)제도는 금융기관이 담보를 취득하고 단기 운전자본을 수출업체에게 융자하는 경우에 미국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이 수출자의 융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운전자본보증의 지원대상은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제품, 원재료, 부품, 노동력 등을 구입하는 기업이다. 구매자신용보증(Financial guarantee)은 미국 또는 외국의 금융기관이 신용있는 해외 수입자에게 공여한 수출금융에 대하여 미국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이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구매자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은 1천만달러 이상의 자본설비,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관련 서비스의 수출(리스계약 포함). 한국수출보험공사, 「주요국의 수출지원 신용제도」, 1998, pp.37-47.
- 2) 미국의 대출제도는 직접대출과 간접대출 2종목으로 분류된다. 직접대출(Direct loan)은 미국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외국의 수입자에게 직접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외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수출신용경쟁에 대응하여 고정금리로 중장기 신용이 제공되며, 지원대상으로는 수출액 1천만달러 이상, 신용기간이 7년 이상인 미국산 자본재 및 관련 서비스의 수출이다. 간접대출(Intermediary loan)은 외국수입자에게 따라 수출금융을 공여하는 중개기관(intermediary)에게 고정금리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으로는 5백만달러 이하의 자본설비, 프로젝트 및 서비스의 수출.
- 3) 신규수출자보험, 중소수출업자보험(Umbrella Policy), 포괄수입자보험, 단기개별수입자보험, 은행신용장보험 등 5개 종류의 단기 수출보험제도가 있다.

<표 1> 한·미·일 수출보험의 종류 및 내용

국가별 수출보험의 종류			내용
한국	일본	미국	
단기 수출보험	단기종합보험	신규수출자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 단기상품 수출거래, 2년 이상 중기상품 수출거래,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프로젝트 등의 수출대금 회수 불능위험 담보
중장기수출보험		중소수출자보험	
해외건설공사보험	기술제공보험	단기개별수입자보험	
		중기개별수입자보험	
농산물수출보험		포괄수입자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 농산물수출거래 대금회수 불능위험 담보
수출어음보험	수출어음보험	은행신용장보험	무신용장거래 또는 신용장거래의 수출대금 미 회수위험 담보
수출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의한 손실 보상 담보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의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손실 담보
시장개척보험			무역전시회 참가비용 미 회수 위험담보
수출신용보증			수출금융 시 수출자의 상환 채무 위험 담보
환 변동보험	환율변동보험		환차손 위험 담보
이자율변동보험			이자율 차액 손실 위험 담보
	선불수입보험		수입자가 기지급한 선수금 미회수 위험 담보
	해외사업자금 대부보험		해외프로젝트의 장기대출 또는 보증채무이행 손실 보상 담보

자료: 저자작성

## 2. 한·미·일 각국의 수출보험제도 활용률 비교

<표 2>에서 한국의 1980년대의 수출보험제도 활용률을 보면, 1981년에 10%대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1988년에는 0.46%까지 감소하기도 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199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20%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활용률의 특징은 한국의 수출 호조 또는 저조와, 수출보험제도의 전담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 발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4)</sup>

<표 2>에서 미국의 수출보험제도 활용률을 살펴보면 1980년대 2%대 활용률에서 계속 떨어져 1990년대에서는 1% 미만의 낮은 활용률을 보여 준다. 미국의 낮은 활용률은 미국의 경제특성에서 유추하여 볼 수 있다. 미국은 내수시장 위주의 경제이며, 서비스수출과 해외직접투자의 높은 비중 때문에 수출보험 수요를 크게 요하지 않는 경제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활용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2>에서 일본의 수출보험제도의 활용률을 살펴보면 1980년대의 경우 초반에는 50%이상의 활용률을 보여 주고 있으나 1985년부터 30%대의 활용률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는 계속해서 40%대의 활용률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의 수출보험 활용률은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우 높다. 이는 일본정부가 간접적으로 수출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

4) 김희국,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수출보험」, 통권92호, 한국수출보험공사, 1998.11, pp.16-26 참조.

부는 수출보험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정부로 하여금 수출업체에게 수출보험료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수출업체에 대해서 수입보험료의 4배 이상(손해율 422%)을 보험금으로 지불하는 예도 있다.

1999년까지 일본의 경우 산업별포괄보험을 실시하여 산업별조합에서 수보를 많이 함으로써 한국보다 수출보험활용률이 높았으나, 2000년부터 일본의 수출보험 활용률은 급격히 하락하여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하락이 그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한국은 1999년 이후 계속하여 수출이 증가함으로서 활용률도 계속 증가하여 22% 대를 유지하면서 일본에 비해 높은 활용률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 한·미·일의 수출보험제도 활용현황

(단위 : Billions of US Dollars)

연도	수출액 <sup>1)</sup> (A)			수출보험인수액 <sup>2)</sup> (B)			수출보험활용률 (B/A) (%)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1980	17.51	225.57	129.58	0.81	5.52	69.51	4.61	2.45	53.64
1981	21.27	239.72	151.76	2.22	5.91	81.07	10.44	2.48	53.42
1982	21.85	216.44	138.24	1.97	5.10	79.55	9.02	2.36	57.54
1983	24.45	205.64	146.98	1.26	6.78	76.35	5.15	3.30	51.95
1984	29.25	223.98	169.78	1.55	5.82	69.06	5.30	2.60	40.68
1985	30.28	218.82	175.90	1.54	6.53	60.62	5.09	2.98	34.46
1986	34.72	227.16	213.21	1.19	4.38	69.40	3.43	1.93	32.55
1987	47.28	254.12	230.34	0.52	6.44	69.40	1.10	2.53	30.13
1988	60.70	322.43	264.75	0.28	5.13	75.24	0.46	1.59	28.42
1989	62.38	363.81	274.16	0.55	4.36	117.16	0.88	1.19	42.73
1990	65.02	393.59	286.33	2.39	4.84	120.46	3.68	1.23	42.07
1991	71.87	421.73	314.45	2.06	4.55	129.86	2.87	1.08	41.30
1992	76.63	448.16	339.61	2.31	4.22	143.43	3.01	0.94	42.23
1993	82.24	464.77	361.51	3.78	4.23	180.09	4.60	0.91	49.82
1994	96.01	512.63	395.95	5.05	4.49	199.04	5.26	8.76	50.27
1995	125.06	584.73	441.55	13.03	4.40	185.20	10.42	0.75	41.94
1996	129.72	625.07	411.19	15.43	4.77	178.08	11.89	0.76	43.31
1997	136.16	688.70	421.01	16.09	2.85	177.44	11.82	0.41	42.15
1998	132.31	682.14	386.86	20.10	4.30	159.05	15.19	0.63	41.11
1999	144.75	702.10	417.43	28.74	3.87	166.04	19.85	0.51	39.78
2000	172.27	781.13	469.53	29.93	4.80	96.06	17.37	0.61	20.46
2001	150.44	730.80	445.55	32.17	3.17	92.15	21.38	0.43	20.68
2002	162.47	693.86	473.72	36.24	3.33	96.78	22.31	0.48	20.43
2003	193.82	723.74	496.02	43.22	4.07	100.36	22.30	0.56	20.23

자료 : 1)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2004.

2)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25년사」, 1994.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1980-2003.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The Annual Report*, 1980-2003.

일본무역보험기구, 「무역보험」, 1980-2003.

한국·미국·일본의 수출보험제도 활용률을 비교 분석하여 보면 미국의 수출보험제도는 낮은 활용률에 계속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수출보험제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보험제도 역시 꾸준히 높은 활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특성 차이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제특성은 내수시장 위주의 경제이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수출상대국은 수출위험이 적은 나라이므로 수출보험제도에 의한 정부의 수출지원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특성은 공산품 수출국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통해 자국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필요로 하고,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출상대국이 대부분 아시아지역이어서 수출위험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활용률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수출보험제도 활용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한국·미국·일본의 10대 수출국

순 위	한 국	미 국	일 본
1	미 국	캐나다	미 국
2	일 본	멕시코	대 만
3	중 국	일 본	한 국
4	홍 콩	영 국	중 국
5	대 만	서 독	홍 콩
6	싱가폴	한 국	싱가폴
7	영 국	대 만	독 일
8	독 일	네덜란드	영 국
9	말레이시아	프랑스	말레이시아
10	인도네시아	싱가폴	태 국

자료 : www.kotis.net

주 : 5년 간(1995년-1999년)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10대 수출상대국.

### III. 선행연구

국내에서의 수출보험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박진근은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경상수지와 수출보험 활용률 간에 역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수출보험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sup>5)</sup>

정홍주는 수출보험의 손해빈도가 전년도 경상수지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는데, 인수액과 활용률, 그리고 선진국 수출비중이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손해심도는 중화학공업비중과

5) 박진근, “한국수출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I)”, 『수출보험』, 제3호, 한국수출보험공사, 1989, pp.53-87.

환율이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혔다.<sup>6)</sup>

박상호는 수출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수출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수출비용이 높을수록, 수출사고경험이 많을수록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성향이 높다고 지적하였다.<sup>7)</sup>

정홍주는 수출보험가입자의 특성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 자본금이 적을수록, 또는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성향이 높아 파산가능성 또는 파산비용이 수출보험가입의 주요 동기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보험료율이 단순 명료하고 안정적인 강점이 있으나 분류의 단순함, 기간별 요율의 성형성,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의 미구분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sup>8)</sup>

수출보험의 영향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을 연구대상으로 한 국내의 학자의 연구 논문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연구로는 김희국(1998), 박현희(1999), 이은재(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희국(1998)은 한국의 수출보험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다변량 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regressive Model)에 의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사용하여 한국의 수출에 대한 예측오차의 분산 중에서 수출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부분을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자료로는 한국의 수출보험인수액 1987.1~1997.4분기까지의 분기별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액에 대한 한국의 수출보험인수액은 정(+)의 관계로 나타나 한국의 수출보험은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그리고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분해 분석한 결과 수출보험의 수출촉진효과가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박현희(1999)는 한국의 수출보험이 한국의 수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수출수요함수를 설정하였다. 한국 수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역상대국의 소득, 한국의 수출가격지수와 교역상대국의 물가지수의 비율로 나타낸 상대가격지수, 한국의 수출보험인수액을 들 수 있다고 보고, 각각의 변수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에 앞서 시계열 자료가 가질 수 있는 허구적 회귀현상을 해소하려고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고, 원자료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1차 차분한 자료를 대상으로 통상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출보험의 영향에 관한 이은재(2000)의 연구는 한국의 수출보험제도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세계의 상대가격, 세계소득, 한국의 수출보험인수액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각의 변수에 자연대수를 취한 후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세계소득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수출상대가격과 수출보험인수액은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sup>10)</sup>

6) 정홍주, "우리나라 수출보험 손해율에 관하여", 『한국경제』, 제19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산업연구소, 1992, pp.159-173.

7) 박상호, "수출보험 가입동기에 관한 실증연구", 『수출보험』, 통권 제71호, 한국수출보험공사, 1995, pp.2-16.

8) 정홍주, "수출보험가입자 연구와 활성화방안",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pp.1-20.

9) 김희국, 전제서, pp.2-19.



이와 같이 1998년부터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기존연구가 몇 차례 수행되었으나, 모두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었으며, 그 대상을 외국까지 확대하여 연구한 논문은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각국의 수출보험제도와 활용률을 비교분석한 후 실증 분석을 통해 심도있게 연구한다.

## IV. 실증분석 및 결과 해석

### 1. 연구모형의 설정

수출수요 함수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추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 개념을 이용한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수출수요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탄력성 접근방법을 이용하면 가격 또는 소득의 변화에 따른 수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탄력성 접근법에서는 각 재화에 대한 수요가 그 재화의 가격과 소비자의 소득에 의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 또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수출의 변화에 대한 방향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미국·일본의 수출보험부보액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수출수요함수에 수출보험인수액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추가할 것이다.

한국·미국·일본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는 교역 대상국의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수출수요함수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Y = f(X_1, X_2, X_3) \quad (1)$$

여기서 Y는 각국의 수출액(총수출산업의 총수출액),  $X_1$ 은 수출상대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X_2$ 는 수출상대국의 국내총생산(GDP),  $X_3$ 는 각국의 수출보험인수액이다. (1)의 수출수요 함수식에서 각각의 변수에 자연대수(natural logarithm)를 취하여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수요함수 회귀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ln Y_k = \alpha + \beta_{k1} \ln X_{k1} + \beta_{k2} \ln X_{k2} + \beta_{k3} \ln X_{k3} + \varepsilon_k \quad (2)$$

$$\ln Y_u = \alpha + \beta_{u1} \ln X_{u1} + \beta_{u2} \ln X_{u2} + \beta_{u3} \ln X_{u3} + \varepsilon_u \quad (3)$$

10) 이은재,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0.4, pp.169-194.

$$\ln Y_j = \alpha + \beta_{j1} \ln X_{j1} + \beta_{j2} \ln X_{j2} + \beta_{j3} \ln X_{j3} + \varepsilon_j \quad (4)$$

(2)식, (3)식, (4)식은 각각 한국·미국·일본의 회귀모형이며, (2)식에  $Y_k$ 는 종속변수로서 한국의 수출액이고,  $X_{k1}$ ,  $X_{k2}$ ,  $X_{k3}$ 는 독립변수로 한국의 수출상대국가격, 수출상대국GDP, 수출보험인수액이다. (2)식의  $\alpha$ 는 상수항을 나타내고,  $\beta_{k1}$ ,  $\beta_{k2}$ ,  $\beta_{k3}$ 는 한국의 경우 독립변수의 추정계수를 나타내며,  $\varepsilon_k$ 는 잔차를 나타낸다. (3)식에  $Y_u$ 는 종속변수로 미국의 수출액이고,  $X_{u1}$ ,  $X_{u2}$ ,  $X_{u3}$ 는 독립변수로 미국의 수출상대국가격, 수출상대국GDP, 수출보험인수액이다. (3)식의  $\alpha$ 는 상수항을 나타내고,  $\beta_{u1}$ ,  $\beta_{u2}$ ,  $\beta_{u3}$ 는 미국의 경우 독립변수의 추정계수를 나타내며,  $\varepsilon_u$ 는 잔차를 나타낸다. (4)식에  $Y_j$ 는 종속변수로 일본의 수출액이고,  $X_{j1}$ ,  $X_{j2}$ ,  $X_{j3}$ 는 독립변수로 일본의 수출상대국가격, 수출상대국GDP, 수출보험인수액이다. (4)식의  $\alpha$ 는 상수항을 나타내고,  $\beta_{j1}$ ,  $\beta_{j2}$ ,  $\beta_{j3}$ 는 일본의 독립변수의 추정계수를 나타내며,  $\varepsilon_j$ 는 잔차를 나타낸다.

(2)식, (3)식, (4)식에서 추정계수  $\beta_{k1}$ ,  $\beta_{k2}$ ,  $\beta_{k3}$ ,  $\beta_{u1}$ ,  $\beta_{u2}$ ,  $\beta_{u3}$ ,  $\beta_{j1}$ ,  $\beta_{j2}$ ,  $\beta_{j3}$ 는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낸다.  $\beta_{k1}$ ,  $\beta_{u1}$ ,  $\beta_{j1}$ 는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상대국의 물가에 대한 추정계수를 나타낸다. 수출상대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록 각국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상대국물가에 대한 추정계수는 정(+)의 부호가 예상된다.  $\beta_{k2}$ ,  $\beta_{u2}$ ,  $\beta_{j2}$ 는 한국·미국·일본 각국 수출상대국의 소득에 대한 추정계수를 나타낸다. 수출상대국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각국의 수출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상대국GDP(소득)에 대한 추정계수는 정(+)의 부호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beta_{k3}$ ,  $\beta_{u3}$ ,  $\beta_{j3}$ 는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보험인수액에 대한 추정계수를 나타낸다.

수출보험인수액의 변화에 따라 수출액이 변할 것으로 가정한다. 즉, 수출국의 수출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이 수출보험을 많이 인수하면 할 수록 수출국의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업자들이 수출보험에 많이 확보 할수록 직면하는 위험부담이 줄게 되어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보험인수액이 증가할수록 자국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보험인수액에 대한 추정계수는 정(+)의 부호를 예상한다.

## 2. 분석자료의 설명

1980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대상으로 수출상대국의 가격과 소득의 변화에 따른 수출의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탄력성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모형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수출액(Exports), 생산자가격(Producer Prices), 국내총생산(GDP)에 관한 통계자료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발행한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2000」에서 각국의 시계열 데이터(Time-Series Data)를 구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주요변수인 한국, 미국, 일본의 수출보험인수액은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발간한 「수출보험 25년사」에서 한국의 20년간 수출보험인수액의 연간 데이터를 구하였다. 미국은 미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이 1980년도부터 1999년까지 출판한 연간보고서 「The Annual Report」를 입수하여 미국의 20년간 수출보험인수액의 연간 데이터를 구하였다. 일본의 경우 日本貿易保險機構에서 출판한 「貿易保險」에서 일본의 20년간 수출보험인수액의 연간 자료를 구하였다.

### 3. 분석방법

통계분석기법 중 회귀분석기법은 탄력성 접근방법의 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회귀분석기법의 원리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도 연동하여 변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가 탄력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계분석기법으로는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1980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각국의 수출액, 수출상대가격, 수출상대국GDP, 수출보험인수액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에 관계되는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에 대하여 자연대수를 취한 후 다중회귀분석법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간 통계자료를 토대로 수출에 관계되는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출수요함수 모형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둘 이상의 변수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sup>11)</sup>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 중에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라 하며,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라 한다. 넓은 의미에서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여 독립변수의 일정한 값에 대응되는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이며, 또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통계적 분석을 의미한다. 여기서 회귀분석의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4. 실증분석의 결과

수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수요함수의 추정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대상 기간은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먼저 각국의 수출액을

11) Moshe Ben-Horim, *Statistics-Decisions and Applications in Business and Economics*, New York: Random House, Inc., 1981, pp.537-571.

종속변수로 하고 각국의 수출상대국물가(생산자물가)와 수출상대국 GDP를 설명변수로 하여 수출수요함수를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인 수출보험이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의 전통적인 수출수요함수에 수출보험인수액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수요함수의 추정결과는 <표 4>에서 볼 수 있으며,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수요함수에 따라 독립변수, 즉 수출상대가격, 수출상대국GDP, 수출보험인수액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수요함수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각각의  $R^2$ (결정계수) 값을 보면 0.95, 0.99, 0.93으로 나타났고,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F값이 각각 80.77, 875.31, 61.50로 세 국가 모두  $F(p\text{-value}) = 0.000 < \alpha = 0.01$  이므로 이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빈-왓슨 검증(durbin-watson test)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각각 더빈-왓슨(durbin-watson) 통계량이 1.30, 2.11, 0.74로 한국과 미국은 회귀식의 D/W 통계량 2에 가까워 자기상관(autocorrelation)현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0.74로 D/W 통계량이 낮아 다소의 자기상관 현상이 나타났으나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수요함수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수출수요함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계수추정치(value of coefficient)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수출액에 대한 독립변수의 수출상대국가가격 계수추정치는 1.10로 나타났고, 수출상대국 GDP의 계수추정치는 0.03, 수출보험인수액의 계수추정치는 0.01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상대국가가격은 예상한 대로 정(+의 부호)로 나타났고, 수출상대국GDP도 예상한 대로 정(+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출보험인수액도 예상한 대로 정(+의 부호)로 나타났다.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t-test 결과를 보면 한국의 수출상대국가가격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상대국 GDP와 수출보험인수액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상대국GDP와 수출보험인수액은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수출상대국가가격은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수출액에 대한 독립변수인 수출상대국가가격 계수추정치가 0.98을 나타내었고, 수출상대국 GDP의 계수추정치는 0.68, 수출보험인수액의 계수추정치는 0.03을 나타내었다. 미국의 수출상대국가가격은 예상한 대로 정(+의 부호)를 보여 주고 있고, 수출상대국GDP도 예상한대로 정(+의 부호)를 보여 주고 있으며, 수출보험인수액도 예상한 대로 정(+의 부호)를 보여 주고 있다.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t-test 결과를 보면 미국의 수출상대국가가격과 수출상대국 GDP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출보험인수액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상대국가가격과 수출상대국GDP는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에 수출보험인수액은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출액에 대한 독립변수인 수출상대국가가격 계수추정치는 1.37을 나타내었고,

수출상대국 GDP의 계수추정치는 0.06, 수출보험인수액의 계수추정치는 1.07을 나타내었다. 일본의 수출상대국가가격은 예상한 대로 정(+)의 부호를 보여 주고 있고, 수출상대국GDP도 예상한대로 정(+)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출보험인수액도 예상한 대로 정(+)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독립 변수에 대한 t-test 결과를 보면 일본의 수출상대국가가격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상대국GDP와 수출보험인수액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상대국GDP와 수출보험인수액은 일본의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에 수출상대국가가격은 일본의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5.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실증분석결과 비교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계수추정치의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수출상대국 물가의 계수추정치의 부호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미국·일본 각국이 모두 정(+)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미국·일본 각국은 모두 수출상대국의 물가와 수출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수출상대국의 물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각국에 있어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경우 독립변수 계수추정치의 t값(t-value)과 p값(p-value)을 보여주고 있다. <표 5>에서 t-test 유의수준을 살펴보면, 수출상대국가가격의 계수추정치는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1%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경우 자국의 수출이 수출상대국 물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미국에 비해 자국의 수출이 상대국의 물가수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결과이며, 본 논문의 하나의 한계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론'부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수출상대국 GDP의 계수추정치는 <표 4>에서 한국·미국·일본 각국이 모두 정(+)의 부호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미국·일본 각국은 수출상대국의 GDP의 소득의 변화에 따라 모두 자국의 수출이 같은 방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에서 t-test 유의수준을 살펴보면, 한국, 미국, 일본 모두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수출이 수출상대국의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수출보험인수액의 계수추정치의 부호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미국·일본 각국이 모두 정(+)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 나라의 수출보험이 모두 자국의 수출에 정(+)의 방향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영향의 정도는 각국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준다. <표 5>에서 t-test의 유의수준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두 나라의 수출보험은 자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수출보험제도는 자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Ⅲ. 각국의 수출보험활용률 비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한국과 일본

에 비해서 수출보험인수실적과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수출보험제도가 미국의 수출에 매우 적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기 t-test 결과에서 미국 수출보험인수액의 계수추정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수출보험제도가 예상했던 대로 t-test에서 수출에 크게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수출수요함수의 회귀분석결과

	한 국	미 국	일 본
종속변수(Y)	수출액	수출액	수출액
상수항(a)	-130.19	-3.20	-105.99
t-value	-1.96	-4.01	-0.42
p-value	( 0.07)*	( 0.00)***	( 0.67)
독립변수(X)	(X k <sub>1</sub> , X k <sub>2</sub> , X k <sub>3</sub> )	(X u <sub>1</sub> , X u <sub>2</sub> , X u <sub>3</sub> )	(X J <sub>1</sub> , X J <sub>2</sub> , X J <sub>3</sub> )
추정계수			
수출상대국물가 (β <sub>1</sub> X <sub>1</sub> )t-value	1.10 1.32 (0.20)	0.98 8.34 (0.00)***	1.37 0.37 (0.71)
수출상대국 GDP (β <sub>2</sub> X <sub>2</sub> )t-value	0.03 4.48 (0.00)***	0.68 14.19 (0.00)***	0.06 2.49 (0.02)**
수출보험인수액 (β <sub>3</sub> X <sub>3</sub> )t-value	0.01 11.42 (0.00)***	0.03 0.38 (0.71)	1.07 2.99 (0.01)***
R <sup>2</sup>	0.95	0.99	0.93
F 값	80.77 (0.000)***	875.31 (0.000)***	61.50 (0.000)***
Durbin-Watson (D/W)	1.30	2.11	0.74

주: 1) t값의 0는 t값에 대한 유의수준이며, F값의 0는 F값에 대한 유의수준  
 2)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표 5> 한국·미국·일본 각국의 t-test 결과 비교

구분	수출상대국물가	수출상대국 GDP	수출보험인수액
한국	1.32 (0.20)	4.48*** (0.00)	11.42*** (0.00)
미국	8.34*** (0.00)	14.19*** (0.00)	0.38 (0.71)
일본	0.37 (0.71)	2.49** (0.02)	2.99*** (0.01)

주 :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 안의 값은 유의수준을 나타냄.

## 6. 실증분석결과의 예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변수에 대한 추정계수 검증의 결과를 보면, 수출상대국물가의 추정계수에서 한국·미국·일본 각국이 모두 정(+)의 부호로 반응하고 있어 예상 방향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계수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은 수출상대국의 물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출상대국 GDP의 추정계수는 한국·미국·일본 각국이 모두 정(+)의 부호로 나타났고 t통계량에서도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미국·일본 각국은 수출상대국의 GDP의 변화에 따라 수출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상대국의 소득의 증가는 수출국의 수출증가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독립변수인 수출보험인수액에 대한 실증분석 검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수출보험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보험인수액이 많아질수록 수출업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의 수출업자들이 수출보험에 많이 가입할수록 수출업자들은 직면하는 위험부담이 줄게 되어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수출보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희국(1998)의 연구에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현희(1999)와 이은재(2000)의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자료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박현희(1999)와 이은재(2000)의 연구에서와 달리 1970년대 자료는 제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출보험 활용률이 높아진 1980년대부터 1999년대까지 20년간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박현희(1999)와 이은재(2000)의 연구에서와 달리 수출보험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다고 볼 수 있다. 김희국(1998)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처럼 1970년대 자료를 제외하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보험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은 수출보험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수출보험제도 활용률을 살펴보면 1980년대 2%대 활용률에서 계속 떨어져 1990년대에서는 1% 미만의 낮은 활용률을 보여 준다. 즉 미국은 수출보험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낮은 활용률은 미국의 경제특성때문으로 유추하여 볼 수 있다. 미국은 내수시장 위주의 경제이며, 보증 및 대출제도를 제외한 좁은 의미에서의 수출보험을 크게 요하지 않는 수출상품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활용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수출보험보다는 보증제도 및 대출제도의 이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본설비, 프로젝트 및 서비스 등 첨단 제품의 수출계약에 수출보험제도가 아닌 별도의 보증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미국은 주로 수출위험이 큰 공산품 수출에 대한 비중이 적어 수출보험제도 사용이 적은 반면에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80년대에는 50%대, 90년대에는 40%대로 수출보험 활용률이 매우 높다. 일본의 수출보험 운영종목 구성비를 살펴보면, 무역일반보험이 96.33%로 일본은 주로 수출위험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상품수출 계약에 사용하는 무역일반보험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공산품 수출국으로서 상품거래 계약에 수출보험제도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 V. 전자무역을 위한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 개선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보험은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기본 경제가 공산품 수출국임을 감안하면 수출보험의 확대는 수출촉진에 직결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 무역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변화된 국제무역환경에 맞추어 전자무역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수출보험 운영으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해외수입자의 신용조사 및 평가

수출은 국내 수출업자와 외국에 있는 수입자와의 거래이다. 따라서 수입자의 파산, 지급불능, 일방적인 계약파기, 채무이행지체 등의 신용위험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최근에는 수출경쟁이 심화되어 무신용장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수출보험에서는 이러한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한 후 보험의 인수여부와 보험을 인수함에 있어서 위험의 정도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수입자의 신용조사 및 평가를 한다면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도처에 있는 수입자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신용조사 인증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시에 이러한 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국제전자인증을 획득한 후 자발적으로 수입자의 신용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수출자에게 신속한 신용 등급평가 후 자동한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전자무역보증

수출계약이나 해외건설계약 또는 해외건설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증서를 발행한 외국환은행이 해외수입자나 해외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bond calling)를 받아 이를 이행할 때 입게 되는 손실을 수출보험에서는 보상한다. 또한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수출자에



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때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해 수출보험에서는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게 된다. 이 경우 전자무역보증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출보험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무역보증제도는 선적전 전자무역보증, 선적후 전자무역보증, 선수금전자무역보증, 계약이행전자무역보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선적전 무역보증은 수출상품 선적전 수출자의 신용도에 근거한 국내 대출보증으로 수출을 전제로 한 무역금융의 일종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전자거래가 정착되어 있는 국내은행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자무역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 때 수출자로부터 채권서류 및 각종 증빙서류들의 제출이 요구됨으로서 자동화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보증제도에서는 제출서류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일회방문에 의한 확인으로 모든 절차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선적후 전자무역보증은 수출상품 선적후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하여 수출보험에서 금융기관에 신용 보증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만기전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선회수 할 때 은행이 신용보증을 요구한다. 이 경우 선적전 전자무역보증 시스템과 같으나 수출자의 귀책사항 및 면책사항 기준을 전자문서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자 신용등급별 자동한도 부여 및 회전보증방식 등을 전자문서화하여 신속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수금전자무역보증 및 계약이행전자무역보증은 무역을 통한 거래 거래나 기계·설비 등의 수출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의 계약 이행에 대한 확신 및 계약 불이행시 기지급한 선수금의 환급 보장 등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출보험에서는 계약이행 및 선수금환급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증서 발급지원 및 수출보험공사 자체의 보증서 발급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수출보험에서는 선적 전 전자무역보증 시스템과 수출보증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통해 전자무역보증 시스템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및 시사점

### 1. 연구결과의 요약

한국 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경제개발과 고속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산업에 세계·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제공되던 정부의 재정·금융지원의 혜택이 UR타결 결과 WTO의 출범으로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보조금인 수출보험의 유용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1998년부터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연구가 몇 차례 수행되었으나, 모두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었으며, 그 대상을 외국까지 확대하여 연구한 논문은 전무하였다. 본 연

구는 먼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 일본 각국의 수출보험제도를 분석한 후 한국, 미국, 일본 각국에 있어서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통계자료는 1980년대부터 1999년까지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 국가에서 수출보험인수액은 예상했던 대로 모두 정(+)의 부호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액에 영향을 미쳤음을 뜻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수출보험인수액과 수출액사이에 유의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출보험제도는 자국의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수출보험은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기본경제가 공산품 수출국임을 감안하면 수출보험의 확대는 수출촉진에 직결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 무역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보험에서는 전자무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사업 영역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보험에서 가능한 서비스 영역은 크게 신용조사, 신용평가, 선적 전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선적 후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담보, 계약이행 및 선수금환급 등에 대한 보증으로 각각의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국제무역에 있어 전자무역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고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정부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전자무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무역을 위한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의 개선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2.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여건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한가지 한계라 할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성장 시기가 같지 않았고, 또한 경제수준도 각각 달랐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이다. 즉,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경제성장의 시기적 차이와 경제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연구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한국·미국·일본을 대상으로 수출보험에 대하여 연구를 행하였는데 향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수출보험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다른 나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수출액이 수출상대국의 생산자물가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비해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경우 수출상대국의 상품가격에 덜 민감한 첨단제품의 수출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잘못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차후에 수출상대국가격을 한 국가의 전체상품으로 구성된 물가지수를 사용하는 대신 수출상품으로만 구성된 가격지수를 사용하던가 수출상대국가

의 상대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연구해볼 예정이다. 이렇게 독립변수를 수정한다 하여 반드시 기대했던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수(수출상품만으로 구성된 수출상대국의 가격지수 또는 수출상대국과의 상대물가지수)와 기존변수(전체상품으로 구성된 수출상대국의 가격지수)사이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러한 사회과학분야의 통계분석에는 통계자료에 기인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관영, “수출보험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2000년 정례학술발표논문집」, 한국수출보험학회, 2000.6.
- 김기수, 「WTO 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종연구소, 1996.
- 김용호, “우리나라 輸出企業의 信用리스크관리성과 측정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19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1994.
- 김종만, 「일본환율정책의 방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 김태준, “선진국의 수출보험제도 운영 실태와 운영 시사점”, 「2000년 정례학술발표논문집」, 한국수출보험학회, 2000.6.
- 김희국, “輸出保險이 輸出에 미치는 효과분석”, 「輸出保險」, 통권 제92호, 한국수출보험공사, 1998.11.
- \_\_\_\_\_, “수출보험 이용요인에 관한 연구”, 「2000년 정례학술발표논문집」, 한국수출보험학회, 2000.6.
- 박상호, “輸出保險 가입동기에 관한 실증연구”, 「輸出保險」, 통권 제71호, 한국수출보험공사, 1995.5.
- 박현희,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4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1999.10.
- 손상기, “수출입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대외결제방식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상학」, 제13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1998.5.
- 안충영,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보험의 중장기발전방안”, 「輸出保險」, 통권 제56호, 한국수출보험공사, 1993.3.
- 이경룡·김용호, “한국기업의 輸出信用 리스크관리와 수출성과분석”, 「리스크 관리연구」, 제4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994.
- 이순재, “리스크관리이론의 발전과 현황”, 「보험개발연구」, 제18호, 보험개발원, 1996.
- 이은재,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

- 지», 제2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0.4.
- 정홍주, “무역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의 역할”, 「무역논집」, 제10호,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1992.
-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실무 I, II」, 1998.
- \_\_\_\_\_ , 「수출보험! 이렇게 활용한다」, 1995.
- \_\_\_\_\_ , 「수출보험25년사」, 1994.
- \_\_\_\_\_ , 「수출보험제도 개편」, 1994.
- \_\_\_\_\_ ,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운영방향」, 1997.7.
- 황경연, 「한·미 은행 고객의 인터넷 뱅킹 이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日本貿易保險機構, 「貿易保險制度の解説」, 1991.
- \_\_\_\_\_ , “貿易保險統計月報 : 1950-1999”, 「貿易保險」, 1950-1999.
- \_\_\_\_\_ , 「貿易保險規程集」, 2001.
- Ben-Horim, Moshe, *Statistics-Decisions and Applications in Business and Economics*, New York : Random House, Inc., 1981.
- Funatsu, Hideki, “Export Credit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3, Oct., 1986.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Vol.LI II. 2000, Washington, DC: IMF., July, 2000.
- Kahane, Yehuda,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 of Foreign Trade Risks,”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Theory*, Vol.11, 1986.
- Vaughan, Emmert J. and Therese M. Vaughan, *Fundamentals of Risk and Insurance*, John Wiley & Sons, 1996.
- Willet, Alan H., *The Economic Theory of Risk and Insura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1.
-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WTO, 1995.